주목! 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웃음·감동·열정… 최고의 영화?

'19번의 동점과 2번의 연장전, 그리고 마지막 승부던지기 후 안타까운 패배.'

어떤 드라마 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한국 여자 핸드볼팀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다.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 주변부 인생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던 임순례 감독이 7년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문소리, 김정은, 김지영, 조은지, 엄태웅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 때 한국 최고의 핸드볼 선수였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소속팀의 해체 등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미숙은 라이벌이자 일본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고 있던 혜경이 대표팀 감독 대행으로 오면서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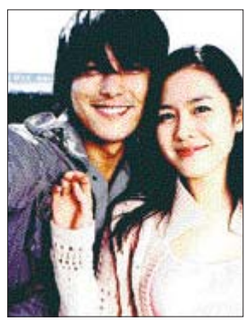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선수촌에 입소한 미숙, 34세에 태극 마크를 단 정란, 노처녀 골기파 수희 등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해나가는데….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배우들이 CG나 대역 없이 자신들만의 세트 플레이를 보 여준다.

〈전체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머리속의 지우개' 日서 TV드라마로



2005년 일본에서 개봉돼 역대 한국영화 최고인 30억 엔의 흥행수익을 올린 정우성 · 손예진 주연의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이재한 감독, 싸이더스 픽쳐스 제작)가 또다시 일본에서 TV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는 2001년 니혼TV에서 방송된 드라마 '퓨어 솔(Pure Soul)'을 원작으로 만들었으며, 니혼TV는 영화를 다시 드라마로 만들어 오는 3월13일 방송한다.

니혼TV는 이례적으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를 다리 리메이크해 골든타임인 9시30분부터 두 시간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드라마 '내 머리 속의 지우개'는 설정도 원작 '퓨어 솔'의 사장 딸과 목수의 관계가 아닌 미술학교의 학생과 화가의 관계로 새롭게 그려진다.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는 2006년 3월에도 인터넷 무료 방송채널 '갸오(Gyao)' 개국 1주년 기념작인 '내 머리 속의 지우개-또 하나의 편지(Another letter)'로 리메이크돼 방영됐다. /연합뉴스

"한국영화 돌파구 해외 개척뿐 세계적 '거사' 자신있다"

'현의 노래' 연출 맡은 여수 출신 주경중 감독

영화 '동승'으로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해 상하이·카이로·시카고 등 각종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며 주목받았던 여수 출신 주경중(47) 감독이 차기작으로 '현의 노래'(100억원 규모)를 선택했다.

김훈 작가의 소설 '현의 노래'를 원작으로 한 이번 영화는 '시네마 천국' '미션' 등의 영화음악을 만든 엔니오 모리꼬네가 영화음악을, 칸·베를린 영화제 등을 휩쓴 유명 프로듀서 이세키 사토루가 해외 프로듀서를 맡아 시작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주인공 우륵역에는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캐스팅된 상태다.

4년 전 제작비가 부족해 살던 집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가며 힘들게 영화 '동승'을 찍었던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거장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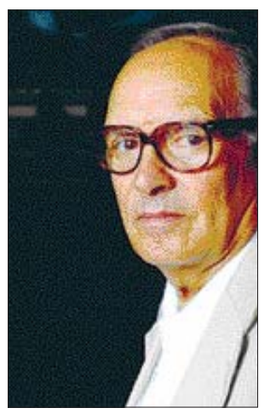
"관객들이 외면하고 투자자들마저 떠나고 있는 한국영화의 돌파구는 해외시장 개척뿐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세키 씨에게 지인을 통해서 '현의 노래' 시나리오와 기획안을 보냈고 지난 2006년 말 영화 '묵공' 한국 시사회 때 만날 수 있었죠."

주 감독은 그 자리에서 이세키 씨에게 영화 '현의 노래' 해외 프로듀서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단다. 자신의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만큼 세 가지 요구조건도 덧붙였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3천 개 스크린에서 동시개봉 할 것, 둘째 엔니오 모리꼬네 섭외를 도와 줄 것,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해달라는 것.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였다.

"제 요구사항을 들은 이세키 씨가 웃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스크린 3천 개 동시개봉은 자신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전 자신이 있었어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인 '현의 노래'이지만 그 속에는 음악과 사랑이라는 세계 공통언어가 담겨 있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던 이세키 씨도 주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현재 엔니오 모리꼬네와는 약정서를 교환한 뒤 음악작업의 틀을 구상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저명한 무용가이자 영화감독인 양리핑을 무용감독으로 영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천500년 전 한국의 고대국 가야왕국의 천재적인 악사와 춤꾼 이야기인 '현의 노래'를 한국 감독의 연출 아래 일본의 프로듀서, 유럽의 음악감독, 중국의 무용감독이 함께 완성한다면 정말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엔니오 모리꼬네

주연 안성기

모리꼬네 등 거장들 가세…韓·日·유럽의 하모니
"음악과 사랑,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 먹힐 것"

하지만 자신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김훈 작가를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몇몇 영화사와 감독들이 '현의 노래' 관권 확보에 나서던 터라 어려움이 더했다.

하지만 영화 '동승'의 순수성에 매력을 느낀 김훈 작가가 그에게 판권을 넘겼다. 게다가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보는 것이 체질적으로 안 맞아 영화는 거의 안 본다'고 했던 김훈 작가는 '현의 노래'만큼은 꼭 보겠다는 약속까지 했단다.

"소설 속에 보면 궁녀 아라가 가실왕이 죽던 날 밤 순장을 피해 궁궐을 도망쳐 나오기 전 숲 속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김훈 작가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꼭 살려달라는 당부를 하더군요. 하지만 여배우가 엉덩이를 보이며 소변을 보는 그림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초고에서는 뺐어요. 영화적인 그림으로 형상화할 자신이 있으면 그때 생각해 볼래요."

'현의 노래'는 캐스팅을 마친 뒤 3월 중순부터 순천만 갈대숲을 시작으로 영암 월출산, 담양 대나무 숲, 장흥 천관산, 경남 고령, 중국 쓰촨성 등지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더 재킷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마법에 걸린 사랑 동화속 주인공을 현실 속으로 살려낸 로맨틱 코미디.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말할수 없는 비밀 중국의 만능엔터이너 저우제륜이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
무방비 도시 김명민, 손예진 주연의 범죄 스릴러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미스트 할리우드 공포의 대가 '스티븐 킹'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씨티 데이즈 오브 나이트 30일동안 해가 뜨지 않은 알래스카에서 일어나는 공포를 다룬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롯데(첨단),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년 아테네올림픽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꿀벌 대소동 꿀벌을 주인공으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기다리다 미쳐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 제일), 엔터
더 시크릿 일본 영화 '비밀'을 리메이크, 룩베송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첨단), 하미
마고리엄 장난감 백화점 장난감이 살아숨쉬는 판타지 영화로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엔터, 하미
아메리칸 갱스터 덴젤워싱턴, 러셀 크로 주연의 느와르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하미,엔터
내셔널 트레져-비밀의 책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어드벤쳐 블록버스터.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 제일), 엔터
앨빈과 슈퍼밴드 다람쥐 힙합 그룹의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하미